

미소기 연못

정화(미소기)는 신도(神道)의 중심적인 의식으로 참배하기 앞서 심신을 정화하기 위해 행해졌으며, 신사 입구에서 손과 입을 씻는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이러한 풍습은 남매였던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두 신이 일본 열도의 다양한 섬들과 그곳에 머물고 있는 신들을 창조했다는 일본 건국 신화에서 유래합니다. 여동생인 이자나미는 임무 완료되기도 전에 목숨을 잃었으며 오빠인 이자나기가 여동생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되찾아오려고 하지만, 이에 실패하면서 산 자의 세계에 돌아왔을 때 물에 몸을 담가 죽은 자의 세계에서 옮겨온 부정을 씻어내렸습니다. 정화 의식을 통해 신도에서 말하는 다양한 신들이 탄생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 명의 신이 바로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 달의 신이자 밤의 주인인 쓰쿠요미, 그리고 바다와 폭풍의 신인 스사노오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고사기(古事記)에는 이자나기가 정화 의식을 수행한 장소를 휴가(지금의 미야자키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8 세기 당시의 수도였던 나라에서 일본 신화가 최초로 편찬된 시기에 휴가를 신화의 배경으로 삼았던 이유는, 나라에서 먼 지역이자 남동쪽에 면해 있다는 이유에서 떠오르는 태양, 나아가 신들의 영역과 가장 가까운 장소였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자나기는 상록식물이 푸르게 자란 평야에 면해 있는 강어귀에서 부정을 씻어내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현실 세계에 있는 특정 장소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장소로, 훗날 이곳 미야자키시의 ‘미소기 연못’ 등 휴가의 여러 장소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